

분장실

[문의] (주)나인스토리 홍보마케팅팀 오혜인 대리

02-3672-0900 / 010-7414-1842 / henny@9-story.com

※ [자료 다운로드] 웹하드 ID : ninestory09 PW : 0900

PRESS RELEASE

연극 <분장실> 개막 D-2, 연습 현장 공개! “관객 맛이 준비 완료”

이번주 토요일(8/7) 대학로 자유극장 개막



△ 연극 <분장실> 연습사진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배종옥·서이숙, 정재은·황영희, 이상아·우정원, 지우·손지윤 (사진제공=T2N미디어)

오는 7일(토)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개막하는 연극 <분장실>이 울여름 더위보다 더 열기 가득한 연습 현장을 공개하며 개막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번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 배종옥, 서이숙, 정재은, 황영희, 손지윤, 우정원, 이상아, 지우는 반복되는 연습에도 지치는 기색 없이 높은 집중력을 보여줘 스태프들의 감탄을 이끌어냈다. 특히 실제 베테랑 배우들이 선사하는 무대 뒤 배우들의 이야기만큼 매 장면마다 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 본 공연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극 중 A, B, C, D 배역처럼 각 세대의 배우들이 서로 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는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위로, 치열한 고민과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감동의 무대를 예고했다.



△ 연극 <분장실> 연습사진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서이숙, 배종옥, 우정원, 이상아 (사진제공=T2N미디어)

연극 <분장실>은 '갈매기'가 공연 중인 어느 극장의 분장실을 배경으로, 무대에 대한 배우들의 열정과 배역에 대한 갈망, 삶에 대한 회한을 그린 희비극이다. 서로 다른 시대를 겪은 4명의 배우들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체호프의 '갈매기'와 '세 자매' 등 고전 명작의 주요 장면을 연기하며 각자의 사연을 무대 위에 풀어놓는다.

<분장실>은 올해 4월 타계한 일본 현대 연극의 거장 '시미즈 쿠니오'의 대표작으로, 이번 공연이 원작자 작고 이후 첫 해외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1977년 초연 이후 일본에서 누계 상연횟수가 가장 많은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시미즈 쿠니오' 특유의 사회성과 문학성이 잘 묻어난 작품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 각지에서도 그 작품성을 이미 인정 받았다.

국내 연극계에서도 이미 유명한 작품인만큼, 극작 및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번 <분장실> 공연이 '울여름 반드시 챙겨 봐야 할 작품'으로 벌써 입소문을 타고 있다.



△ 연극 <분장실> 연습사진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정재은, 정재은-황영희, 지우, 손지윤 (사진제공=T2N미디어)

주로 프롬프터를 하거나 남자 단역을 맡아 여자 역에 대한 로망이 있는 'A' 역에는 서이숙과 정재은이, '갈매기'의 니나 역에 대한 갈망이 크고 호기심과 애교가 많은 'B' 역에는 배종옥과 황영희가 번갈아 출연한다. 여기에 손지윤과 우정원이 극 중 니나 역을 맡은 'C'로 분하며, 'C'의 프롬프터를 맡고 있는 'D' 역은 연극 첫 데뷔를 앞둔 이상아, 지우가 더블 캐스팅 됐다.

막바지 연습에 박차를 가하며 관객 맞이 준비를 마친 연극 <분장실>은 오는 8월 7일(토)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개막하며, 내달 12일(일)까지 공연을 이어간다. (정가 전석 55,000원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 연극 <분장실> 연습사진 (왼쪽) 배종옥, (오른쪽) 서이숙-배종옥 (사진제공=T2N미디어)



시미즈 쿠니오 (清水邦夫) 1936.11.17 ~ 2021.4.15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극작가로, 과거의 기억들이나 환상을 통해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작품에 투영하는 등 문학과 사회성 짙은 작품을 남겼다. '와세다 연극상(테아뜨르 희곡상)', '이즈미 교카 문학상', '요미우리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많은 작품을 남긴 그는 그 위대한 작가로서의 생을 2021년 4월 마감했다. 그의 묘비명은 '나의 혼은 빛나는 물이라' 이다.

- 시놉시스 -

“그래요, 우리 배우잖아요”

체홉의 <갈매기>가 공연 중인 어느 극장의 분장실.
화장대에 앉은 배우 A와 B는 분장에 여념이 없다.
분장실에 들어온 배우 C가 막간을 이용해 '니나의 독백'을 연습한다.
C가 못마땅한 A와 B는 이제껏 연기했던 혹은 연기하고 싶었던
고전의 주요 배역을 떠올리며 자신들만의 역할극을 펼친다.
동질감과 경쟁심이 묘하게 결합된 둘의 대화가 새로운 인물인 배우 D의 등장으로 반전을 맞는다.
D는 C의 언더스터디이자 개인 프롬프터로 그녀의 모든 대사를 외우고 있는 인물이다.
몸이 좋지 않아 최근까지 병원에 있었던 D는 '니나' 역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C는 '니나' 역을 돌려달라는 D의 말에 당황스럽다.
둘의 입씨름은 결국 파국에 이르는데 ...

- 공연개요 -

공연명	연극 <분장실 (樂屋—流れ去るものはやがてなつかしき—)>		
공연장	대학로 자유극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31)		
공연기간	2021년 08월 07일 (토) ~ 2021년 09월 12일 (일)		
공연시간	평일 화-금 8시 / 토 3시, 7시 / 일 및 공휴일 2시, 6시		
티켓가격	전석 55,000원		
관람등급	14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00분
원작	시미즈 쿠니오 (清水邦夫)	각색	윤서현
연출	신경수		
출연	배종옥 · 서이숙 · 정재은 · 황영희 · 손지윤 · 우정원 · 이상아 · 지 우		
제작	T2N미디어 / 플레이어상상(주)	제작투자	(주)아떼모드
홍보마케팅	(주)나인스토리 02-3672-0900	예매처	티켓링크 / 인터파크